

2021년 서울시 9급 국어 A책형 재미있고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보기>의 밑줄 친 말 중에서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

< 보기 >

휴일을 ㉠ 보내는 데에는 ㉡ 책만 한 것이 없다. 책을 읽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짐을 느낀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 김박사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런데 ㉣ 솔직이 말하면 이런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여태까지는 시험 문제의 답을 잘 ㉤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책을 읽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지식과 지혜를 ㉥ 늘리고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책을 ㉦ 읽으므로써 나 자신을 성장시키도록 ㉧ 해야 겠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

㉠ 휴일을 보내는 데에는 (O)

◆ 데: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책만 한 (O)

◆ 만: (조사)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청군이 백군만 못하다. / 안 가느니만 못하다. / 여기서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한: 여기서 '한'은 보조 용언이 아니고 '하다'의 활용형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보조 용언은 보조 동사나 보조 형용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은 보조 용언이 아니므로 '책만 하다'로 '하다' 앞은 띄어 쓴다.

㉞ 김박사님 (X) → 김 박사님

◆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따라서 김 박사라 쓴다.

◆ 님: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접미사는 앞말과 붙여 쓰므로 김 박사님이라 쓴다.

㉟ 솔직이 (X) → 솔직히

◆ 솔직히: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게. ‘솔직이’라는 말은 없다.

☺영보이 암기법: 솔직히 맞히기

㊦ 답을 잘 맞추기 (X) → 답을 잘 맞히기

◆ 맞히다: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맞다’의 사동사.

◆ 활용: 맞히어, 맞히, 맞히니

☺영보이 암기법: 솔직히 맞히기

㊧ 지혜를 늘리고 (O)

◆ 늘리다: 재주나 능력 따위를 나아지게 하다. ‘늘다’의 사동사.

◆ 예: 실력을 늘려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아라.

㊨ 책을 읽으므로써 (X) → 책을 읽음으로써

◆ 으로써: ((주로 ‘-고/-음’ 뒤에 붙어)) 어떤 일의 이유를 나타내는 격 조사.

◆ 예: 감금되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인솔자의 안내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나 자신을 성장시키도록 해야 겠다. (X) → 해야겠다.

◆ -겠: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어미는 앞말과 붙여 쓰므로 ‘해야 겠다’가 아니라 ‘해야겠다’로 붙여 쓴다.

정답: ㉡

2. 밑줄 친 부분의 시제가 나머지 세 문장과 다른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2)

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네, 너도 많이 늙었다.

② 너는 네 아버지 어릴 때를 꼭 닮았어.

③ 그 사람은 작년에 부쩍 늙었어.

④ 고생해서 그런지 많이 말랐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2)

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네, 너도 많이 늙었다. (현재 시제)

◆ 의미: 너도 (이제 보니) 많이 늙었다. < You are too old. >

② 너는 네 아버지 어릴 때를 꼭 닮았어. (현재 시제)

◆ 의미: 네 아버지 어릴 때와 (지금 너는) 꼭 닮았어. < You look just like your father when he was young. >

③ 그 사람은 작년에 부쩍 늙었어. (과거 시제)

◆ 의미: 그 사람은 작년에 (병환으로) 부쩍 늙었어. < He got a lot older last year. >

◆ '작년에'로 보아 병이나 다른 이유로 과거인 작년에 부쩍 늙었음을 의미한다.

④ 고생해서 그런지 많이 말랐네. (현재 시제)

◆ 의미: 너는 고생해서 그런지 (현재) 많이 말랐다. < You are very thin. >

정답: ③

3.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로만 이루어진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3)

- ① 아버님께서서는 동생의 철없는 행동을 들으시고는 대노(大怒)하셨다.
- ② 차림새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갈음이 되지 않는다.
- ③ 새로 산 목거리가 옷과 잘 어울린다.
- ④ 옴로 가면 지름길이 나온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3)

① 아버님께서서는 동생의 철없는 행동을 들으시고는 대노(大怒)하셨다. (X) → 대로(大怒)

◆ 대로(大怒): 크게 화를 냄.

☺영보이 암기법: 아버지께서는 로터리에서 과속한다고 대로(大怒)하셨다.

② 차림새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갈음이 되지 않는다. (X) → 가름

◆ 가름: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일.

◆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 가늠: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림.

③ 새로 산 목거리가 옷과 잘 어울린다. (X) → 목걸이

◆ 목거리: 목이 붓고 아픈 병.

◆ 목걸이: 귀금속이나 보석 따위로 된 목에 거는 장신구.

④ 옴로 가면 지름길이 나온다. (O)

◆ 옴로: (부사) '요리로'의 준말.

◆ 요리로: (부사) '요리'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요리: (부사) 요 곳으로. 또는 요쪽으로.

정답: ④

4. 고사성어의 쓰임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4)

- ① 肝膽相照하던 벗이 떠나 마음이 쓸쓸하다.
- ② 두메 속에 사는 토박이 상놈들이 조 의정 집의 위력을 막을 수는 그야말로 螳螂拒轍이었다.
- ③ 우리의 거사는 騎虎之勢의 형국이니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버티어야 한다.
- ④ 부부의 연을 맺어 百年河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4)

① 肝膽相照하던 벗이 떠나 마음이 쓸쓸하다. (O)

◆ 肝膽相照(간담상조): 肝(간 간) 膽(쓸개 담) 相(서로 상) 照(비칠 조).

◆ 의미: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 보인다.’ 라는 뜻으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귄다.

② 두메 속에 사는 토박이 상놈들이 조 의정 집의 위력을 막을 수는 그야말로 螳螂拒轍이었다. (O)

◆ 螳螂拒轍(당랑거철): 螳(사마귀 당) 螂(사마귀 랑(랑)) 拒(막을 거) 轍(바퀴 자국 철)

◆ 의미: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 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 유의어 < 당랑지부 >**

1) 螳螂之斧(당랑지부): 螳(사마귀 당) 螂(사마귀 랑(랑)) 之(갈 지) 斧(도끼 부)

a) 의미: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 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③ 우리의 거사는 騎虎之勢의 형국이니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버티어야 한다. (O)

◆ 騎虎之勢(기호지세): 騎(말 탈 기) 虎(범 호) 之(갈 지) 勢(형세 세)

a) 의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의어 < 기수지세, 기호난하 >**

1) 騎獸之勢(기수지세): 騎(말 탈 기) 獸(짐승 수) 之(갈 지) 勢(형세 세)

a) 의미: 짐승을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騎虎難下(기호난하): 騎(말 탈 기) 虎(범 호) 難(어려울 난) 下(아래 하)

a) 의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헛갈리는 한자성어 < 백중지세 >**

1) 伯仲之勢(백중지세): 伯(만 백) 仲(버금 중) 之(갈 지) 勢(형세 세)

a) 의미: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유의어 < 난형난제 >**

1) 難兄難弟(난형난제): 難(어려울 난) 難(어려울 난) 弟(아우 제)

a) 의미: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④ 부부의 연을 맺어 百年河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X) → 百年偕老(백년해로)

◆ 百年河清(백년하청): 百(일백 백) 年(해 년) 河(물 하) 清(맑을 청)

◆ 의미: 중국의 황허강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百年偕老(백년해로): 百(일백 백) 年(해 년) 偕(함께 해) 老(늙을 로)

◆ 의미: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

정답: ④

5.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5)

- ① 중성자는 발음 기관의 상형을 통해 만들어졌다.
- ② 같은 조음 위치에 속하는 자음자들은 형태상 유사성을 지닌다.
- ③ 중성자는 기본자를 조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 ④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5)

① 중성자는 발음 기관의 상형을 통해 만들어졌다. (X) → 초성자

◆ 초성자: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

● 중성자: 천(天), 지(地), 인(人)의 모양을 본떠 각각 ‘ㆍ, 一, |’을 만들.

② 같은 조음 위치에 속하는 자음자들은 형태상 유사성을 지닌다. (O)

초성(初聲)의 제자 원리(훈민정음)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제자 원리
아음(牙音)	ㄱ	ㅋ	ㅇ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ㄴ	ㄷ, ㄸ	ㄹ	혓소리
순음(脣音)	ㅁ	ㅂ, ㅃ		입술소리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잇소리
후음(喉音)	ㅇ	ㅎ, ㆁ		목청소리

③ 중성자는 기본자를 조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O)

◆ 중성자는 기본자 ‘ㆍ, 一, |’를 조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중성(中聲)의 제자 원리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제자 원리
ㆍ	ㅏ, ㅑ	ㅓ, ㅕ	하늘의 모양
一	ㅗ, ㅛ	ㅜ, ㅠ	땅의 모양
			서있는 사람의 모습

④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O)

◆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훈민정음에서,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종성의 제자 원리(制字原理). 정답: ①

6. <보기>의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6)

< 보기 >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 ①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내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대결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조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
- ③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였다.
- ④ 현실 비판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의 시이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6)

◆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1978): 이 작품은 기쁨과 슬픔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기쁨은 이 땅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말한다. 반면에 슬픔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어렵게 사는 할머니의 굴 값을 깎고 동사자가 죽었는데도 무관심하다고 하여 비판받고 있다.

①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내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X)

◆ 이 시에서 기쁨은 부정적 존재로, 슬픔은 긍정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 땅의 소외된 사람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지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② 대결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조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 (O)

◆ ‘나는 이제 너에게도 ~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로 보아 대결과 갈등이 아닌 너와 소외된 사람들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③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였다. (O)

◆ 이 말은 역설에 대한 것인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보다 소외된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까지 이해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④ 현실 비판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의 시이다. (O)

◆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로 보아 소외된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현실 비판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로 보아 소외된 사람들의 슬픔이 치유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적인 성격의 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7. <보기>의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7)

< 보기 >

- | | |
|----------------------|-------------------|
| ㄱ. 아젠다(agenda) | ㄴ. 시저(Caesar) |
| ㄷ. 레크레이션(recreation) | ㄹ. 사이트(site) |
| ㅁ. 팸플릿(pamphlet) | ㅂ. 규슈(キュウシュウ, 九州) |

- ① ㄱ, ㄷ, ㄹ ② ㄴ, ㅁ, ㅂ ③ ㄱ, ㄴ, ㄷ, ㅂ ④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7)

ㄴ. 시저(Caesar) (O)

◆ 시저: ‘카이사르’의 영어 이름.

◆ 카이사르(Caesar, Julius):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군인·정치가(B.C.100~B.C.44). 크라수스·폼페이우스와 더불어 제1차 삼두 정치를 수립하였으며, 갈리아와 브리타니아에 원정하여 토벌하였다. 크라수스가 죽은 뒤 폼페이우스마저 몰아내고 독재관이 되었으나, 공화 정치를 옹호한 카시우스룽기누스, 브루투스 등에게 암살되었다. ≪갈리아 전기≫, ≪내란기(內亂記)≫ 따위의 사서(史書)를 남겼다.

ㅁ. 팸플릿(pamphlet) (O)

◆ 팸플릿(pamphlet): 설명이나 광고, 선전 따위를 위하여 알파하게 맨 작은 책자.

◎영보이 암기법: 한 회사가 팸플릿과 함께 스팸을 사은품으로 나눠주고 있다.

ㅂ. 규슈(キュウシュウ, 九州) (O)

◆ 규슈: 일본 열도를 이루는 4대 섬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섬. 또는 그 섬을 중

심으로 하는 지방. 북부는 광공업, 남부는 농수산업이 활발하다. 혼슈(本州)와는 현수교와 해저 터널도 연결되어 있다. 면적은 4만 2149km².

☺**영보이 암기법**: 수산업 균율이 명확한 균슈

cf. 기타큐슈(Kitakyûshû): 일본 규슈(九州) 동북부 후쿠오카현(福岡縣)에 있는 해안 도시. 중화학 공업 지대로 특히 철강업이 활발하다. 수산업도 성하여 김 양식과 연근해 어업이 활발하다

ㄱ. 아젠다(agenda) (X) → **어**젠다

◆ 어젠다(agenda): 모여서 서로 의논하거나 연구할 사항이나 주제.

ㄷ. 레크레이션(recreation) (X) →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하여 함께 모여 놀거나 운동 따위를 즐기는 일.

☺**영보이 암기법**: 프랑스 파리에 레크리에이션

ㄴ. 사이트(site) (X) → **사**이트

◆ 사이트: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저장된 집합체. 외래어 표기에서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영보이 암기법**: 4(사)이트

정답: ②

8. <보기>에서 중의성이 발생한 원인이 같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8)

< 보기 >

ㄱ. 아버지께 꼭 차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ㄴ. 철수는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ㄷ. 철수는 아내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

ㄹ. 잘생긴 영수의 동생을 만났다.

ㅁ. 그것이 정말 사과냐?

ㅂ. 영희는 어제 빨간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ㅂ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8)

ㄱ. 아버지께 꼭 차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어휘적 중의성)

◆ 차가 마시는 차(tea)인지, 자동차(car)인지 어휘적으로 의미가 모호하다.

ㄴ. 철수는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구조적 중의성 중 수식 범위의 중의성)

◆ 하늘이 ‘아름다운’이 ‘하늘’을 꾸미는 것인지, ‘구름’을 꾸미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꾸미는 범위가 모호하다.

ㄷ. 철수는 아내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 (구조적 중의성 중 비교 대상의 중의성)

◆ 철수가 (쇼핑만 하는) 아내는 덜 좋아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딸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보다 철수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가 더 큰 것인지 구

조적으로 의미가 모호하다.

ㄹ. 잘생긴 영수의 동생을 만났다. (구조적 중의성 중 수식 범위의 중의성)

◆ ‘잘생긴’이 ‘영수’를 꾸미는 것인지, ‘동생’을 꾸미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꾸미는 범위가 모호하다.

ㅁ. 그것이 정말 사과냐? (어휘적 중의성)

◆ 사과가 잘못에 대한 사과(apology)인지, 과일 사과(apple)인지 어휘적으로 의미가 모호하다.

ㅂ. 영희는 어제 빨간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부정의 중의성)

◆ 영희가 어제 ‘빨간 모자’가 아닌 ‘파란 모자’를 쓰고 간 것인지, 빨간 모자를 썼으나 ‘학교’가 아닌 ‘해병대 조교 캠프’에 간 것인지 부정의 범위가 어디에 미치는지 의미가 모호하다.

정답: ②

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9)

< 보기 >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 아아, ㉣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님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① ㉠은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을 의미한다.

② ㉡은 친동기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은 다른 향가 작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생생한 표현이다.

④ ㉣은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9)

◆ 월명사, 「제망매가」: 신라 경덕왕 때에 월명사가 지은 10구체의 향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齋)를 올릴 때에 이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지전(紙錢)이 서쪽을 향하여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생사(生死) 길은 < 삶과 죽음의 길은 >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 이른 바람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 한 가지에 나고 < 한 가지에 나고 서도 >

가는 곳 모르온저.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 아아, ㉣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 아아, 극락세계에서 만나 볼 나는 >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

① ㉠은 예상보다 빠르게 닦쳐온 불행을 의미한다. (O)

◆ 이른 바람은 예상보다 빠르게 닦쳐온 누이의 요절을 의미한다.

② ㉡은 친동기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O)

◆ ‘한 가지’, 즉 ‘같은 나뭇가지’는 ‘같은 부모’를 의미하므로 친동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은 다른 향가 작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생생한 표현이다. (X)

◆ ‘아아’는 향가 낙구의 감탄사로 주로 10구체 향가에서 나타난다.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에서는 ‘아으 잣스가지 노파’, 충담사의 「안민가」에서는 아으,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흐닐든, 등에서 낙구의 감탄사를 찾을 수 있다.

④ ㉣은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O)

◆ 미타찰(彌陀刹):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 인간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佛土)를 지난 곳에 있다.

정답: ③

10.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0)

① 예산을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②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방불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③ 정작 일을 서둘고 보니 당초의 예상과는 판판으로 돈이 잘 걷히지 않았다.

④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0)

① 예산을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X) → 견잡아서

◆ 견잡다: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영보이 암기법: 예산을 대충 겉(트)잡아서 이름(트)에 통과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 견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 견잡을 수 없는 사태 / 불길이 견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 - 견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

- ②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방불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O)
 ◆ 방불하다: 거의 비슷하다, 흐릿하거나 어렵듯하다, 무엇과 같다고 느끼게 하다.
- ③ 정작 일을 **서둘러** 보니 당초의 예상과는 판판으로 돈이 잘 걷히지 않았다. (O)
 ◆ 서둘다: ‘서두르다’의 준말로, 일을 빨리 해치우려고 급하게 바빠 움직이다.
 ◆ ‘서둘다’는 ‘서두니’로 활용하는 ‘르’탈락인 규칙동사이고 ‘서두르다’는 ‘서둘러, 서두르니’ 등으로 활용하는 ‘르’불규칙 동사이다.
- ④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O)
 ◆ 갈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 가름하다: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
 ◆ 가늠하다: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다.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리다.
- 정답: ①

11. <보기>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1)

< 보기 >

(가) 어간 받침 ‘ㄴ(ㄴㅅ), ㅁ(ㅁㅅ)’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나) 어간 받침 ‘ㄹ, ㄽ’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가) | (나) |
|------------|-----|
| ① (신을) 신기다 | 여덟도 |
| ② (나이가) 젊지 | 할다 |
| ③ (신을) 신기다 | 할다 |
| ④ (나이가) 젊지 | 여덟도 |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1)

- ① (신을) 신기다[신기다]: ‘신기다’는 ‘신다’의 사동사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여덟도: ‘여덟도’는 [여덜도]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② (나이가) 젊지: ‘젊지’는 어간 받침 ‘ㄴ(ㄴㅅ), ㅁ(ㅁㅅ)’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여 된소리 [점:찌]가 된다.
 할다: ‘할다’는 어간 받침 ‘ㄹ, ㄽ’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여 [할따]가 된다.

- ③ (신을) 신기다[신기다]: ‘신기다’는 ‘신다’의 사동사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할다: 할다’는 어간 받침 ‘ㄹ, ㄽ’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여 [할따]가 된다.
- ④ (나이가) 젊지: ‘젊지’는 어간 받침 ‘ㄴ(ㄴㅅ), ㅁ(ㅁㅅ)’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여 [점:찌]가 된다.
 여덟도: ‘여덟도’는 [여덜도]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정답: ②

12. 밑줄 친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2)

- ①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 ② 부동산 경기를 타고 건축 붐이 일었다.
- ③ 착한 일을 한 덕분에 방송을 타게 됐다.
- ④ 그녀는 아버지의 음악적 소질을 타고 태어났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2)

◆ 다의어 vs 동음이의어: 다의어는 어느 정도 의미의 유사성이 있고 사전에 하나의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동음이의어는 발음이 같을 뿐 연관성이 없고 사전에도 다른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 ‘① 바람을 타고, ② 경기를 타고, ③ 방송을 타고’ 등은 모두 ‘이용하다’는 의미의 유사성이 있어 다의어이다.

◆ 하지만 ④ ‘소질을 타고’는 ‘지니다’의 의미로 ①, ②, ③과는 다른 의미이다. 따라서 ④는 다른 선택지와는 동음이의어이다.

①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O)

◆ 타다: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

② 부동산 경기를 타고 건축 붐이 일었다. (O)

◆ 타다: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③ 착한 일을 한 덕분에 방송을 타게 됐다. (O)

◆ 타다: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

④ 그녀는 아버지의 음악적 소질을 타고 태어났다.

◆ 타다: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정답: ④

13.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아닌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3)

- ①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 ② 군인인 형이 휴가를 나왔다.
- ③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④ 소녀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3)

◆ 관형어: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동사와 형용사의 명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따위가 있다.

①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 ‘새’는 체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② 군인인 형이 휴가를 나왔다.

◆ ‘군인인’은 체언 ‘형’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③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이 문장에서 ‘나에게’는 필수 ‘**부사어**’이다.

cf. 이 문장에서 서술어 ‘주었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④ 소녀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 ‘시골의’는 ‘풍경’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정답: ③

14.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4)

① 이 책은 머릿말부터 마음에 들었다.

② 복도에서 윗층에 사는 노부부를 만났다.

③ 햇님이 방긋 웃는 듯하다.

④ 북엇국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4)

① 이 책은 머릿말부터 마음에 들었다. (X) → 머리말

◆ ‘머리말’은 사잇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머리말’이 옳다. ‘머리말’은 표기나 발음이나 변화가 없다.

② 복도에서 윗층에 사는 노부부를 만났다. (X) → 위층

◆ 거센소리나 된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므로 ‘윗층’이 아니라 ‘**위층**’이다.

☺영보이 암기법: 위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 문제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다.

< 위층 - 위아래 >

③ 햇님이 방긋 웃는 듯하다. (X) → 해님

◆ 해님은 [해님]으로 발음하여 표기와 발음의 변화가 없다.

☺영보이 암기법: 나는 ‘송**해** 선생님’을 줄여서 ‘**해**님’이라고 한다.

④ 북엇국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다. (O)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북엇국’은 순 우리말 ‘국’과 한자어 ‘北魚(북어)’로 된 합성어 앞말이 ‘어’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국’이 [부거꾹, 부겔꾹]과 같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북**엇**국’이 옳다.

☺영보이 암기법: 자녀들이 세뱃돈을 서로 갖겠다고 **엇**박자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북**엇**국을 먹는 거에는 통일된 마음을 보였다. < **엇**박자 - 북**엇**국 >

정답: ④

15.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5)

- ① 너야말로 칭찬받을 만하다.
- ②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 ③ 힘깨나 쓴다고 자랑하지 마라.
- ④ 밥은 커녕 빵도 못 먹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5)

① 너야말로 칭찬받을 만하다. (O)

◆ ‘-야말로’는 강조하여 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 ‘만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②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O)

◆ 이 문장에서 ‘밖에’는 조사로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

③ 힘깨나 쓴다고 자랑하지 마라. (O)

◆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cf. 꽤나(X) → 깨나(O)

④ 밥은 커녕 빵도 못 먹었다. (X) → **밥은커녕**

◆ 커녕: 체언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정답: ④

16.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6)

- ① ‘겨레’는 근대국어에서 ‘친족’을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민족’을 뜻하여 의미가 확대되었다.
- ② ‘얼굴’은 중세국어에서 ‘형체’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안면’을 뜻하여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③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여 의미가 상승하였다.
- ④ ‘계집’은 중세국어에서 ‘여자’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하락하였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6)

① ‘겨레’는 근대국어에서 ‘친족’을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민족’을 뜻하여 의미가 확대되었다. (O)

◆ ‘겨레’는 근대국어(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에서 ‘친족’을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을 뜻하여 의미가 확대되었다.

☺영보이 암기법: 우리 **겨레**는 위대한 민족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② ‘얼굴’은 중세국어에서 ‘형체’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안면’을 뜻하여 의미가 축소되었다. (O)

◆ ‘얼굴’은 중세국어(10세기 초부터 16세기 말)에서 ‘형체(形體)’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만의 ‘안면(顔面)’을 뜻하여 의미가 축소되었다.

☺영보이 암기법: 얼큰이 형님들은 **얼굴** 축소를 소망한다.

③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여 의미가 상승하였다. (X) → 의미가 **이동**되었다.

◆ 의미 이동: 의미 변화의 결과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바뀐 것. 예를 들어 ‘어리석다’라는 뜻의 중세 국어 ‘어리다’가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다’로 바뀐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계집’은 중세국어에서 ‘여자’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여자를 낚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하락하였다. (O)

◆ ‘계집’은 중세국어(10세기 초부터 16세기 말)에서 ‘여자’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여자를 낚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하락하였다. **정답: ③**

17. 밑줄 친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7)

- ① 일부인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 날짜 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 ② 굴삭기에는 굴삭 시건장치를 갖춰야 한다. → 굴삭기에는 굴삭 멈춤장치를 갖춰야 한다.
- ③ 소작농에게 농지를 불하하였다. → 소작농에게 농지를 매각하였다.
- ④ 공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였다. →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였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7)

① 일부인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 날짜 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O)

◆ 일부인(日附印): 서류 따위에 그날그날의 날짜를 찍게 만든 도장.

② 굴삭기에는 굴삭 시건장치를 갖춰야 한다. → 굴삭기에는 굴삭 멈춤장치를 갖춰야 한다. (X) → **잠금장치**

◆ 시건장치(施鍵裝置): 문 따위를 잠그는 장치.

③ 소작농에게 농지를 불하하였다. → 소작농에게 농지를 매각하였다. (O)

◆ 불하(拂下):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 매각(賣却): 물건을 팔아 버림.

④ 공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였다. →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였다. (O)

◆ 지득(知得)하다: 깨달아 알다.

정답: ②

18. <보기>의 작품과 형식이 다른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8)

< 보기 >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갈 고기 뛰노는다.

- ① 「면앙정가」 ② 「오우가」 ③ 「훈민가」 ④ 「도산십이곡」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8)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조선 효종 2년(1651)에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 강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춘·하·추·동 각 10수씩 모두 40수로 되어 있으며, 《고산유고》에 실려 있다.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우는 것이 바뀌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 습인가 >

이어라 이어라 <배 저어라 배 저어라 >

어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날락들락 >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갈 고기 뛰노는다. <말고 깊은 연못에 온갖 물고기 뛰어노는다, >

◆ 송순의 「면앙정가」만 가사(歌辭)이고 나머지는 모두 연시조(聯時調)이다.

◆ 가사(歌辭):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 형식은 주로 4음보의 율문(律文)으로, 3·4조 또는 4·4조를 기조로 하며, 행수(行數)에는 제한이 없다.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인 것을 정격(正格),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變格)이라고 한다.

◆ 연시조(聯時調): 두 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어져 있는 시조. 최초의 연시조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비롯하여 이항의 <도산십이곡>, 이이의 <고산구곡가>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① 송순의 「면앙정가」: 조선 중종 때 송순이 지은 **가사(歌辭)**. 작자가 만년에 고향인 전라남도 담양에 면앙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하면서 주위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심정을 읊었다. 《면앙집》에 한역가가 전한다.

② 윤선도의 「오우가」: 조선 인조 때에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어 비유하여 노래한 것으로, 서장(序章)을 포함하여 모두 6수로 되어 있다. 《고산유고》 가운데 <산중신곡>에 실려 있다.

③ 정철의 「훈민가」: 조선 시대에, 송강 정철이 지은 16수의 **연시조**.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백성을 훈계하기 위하여 지었으며, 《송강가사》에 실려 전한다.

④ 이항의 「도산십이곡」: 조선 명종 20년(1565)에 퇴계 이항이 지은 연시조. 65세 때의 작품으로 모두 12수로 되어 있으며 전 6곡은 연지(言志), 후 6곡은 언학(言學)이라 하였다.

정답: ①

19. <보기>의 ㉠, ㉡에 들어갈 접속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9)

<보기>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과학 연구와 기술 훈련을 위하여 외국에 갔다 돌아오고, 또 많은 외국의 기술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간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과학 기술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문화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더욱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 이러한 선진 과학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다시 이것을 발전시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반의 계획과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참다운 경제 자립을 이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외교의 자주성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 선진 기술을 어떠한 원칙에서 받아들여, 어떠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부터 진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나간다는 것은,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 박익수, 「우리 과학 기술 진흥책」-

- ① ㉠은 조건, 이유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순접’ 기능을 한다.
- ② ㉡은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요약’ 기능을 한다.
- ③ ㉠은 반대, 대립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역접’ 기능을 한다.
- ④ ㉡은 다른 내용을 도입하는 ‘전환’ 기능을 한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19)

◆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과학 연구와 기술 훈련을 위하여 외국에 갔다 돌아오고, 또 많은 외국의 기술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간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과학 기술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문화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더욱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 과학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다시 이것을 발전시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반의 계획과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참다운 경제 자립을 이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외교의 자주성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 기술을 어떠한 원칙에서 받아들여, 어떠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부터 진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나간다는 것은,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① ㉠은 조건, 이유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순접’ 기능을 한다. (X)

◆ ㉡에 들어갈 접속사는 ‘그러나’가 적절한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므로 ‘순접’ 기능이 아니라 ‘역접’ 기능을 한다.

② ㉠은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요약’ 기능을 한다. (X)

◆ ㉠은 ‘따라서’가 적절한데,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요약’ 기능을 하는 접속어는 ‘요컨대’ 정도가 적절하다.

③ ㉡은 반대, 대립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역접’ 기능을 한다. (O)

◆ ㉡에 들어갈 접속사는 ‘그러나’가 적절한데, ‘그러나’는 반대, 대립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역접’ 기능을 한다.

④ ㉢은 다른 내용을 도입하는 ‘전환’ 기능을 한다. (X)

◆ 다른 내용을 도입하는 ‘전환’ 기능을 하는 접속사는 ‘한편’이 적절하여 ㉢에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답: ③

20. <보기>에서 (가)~(라)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20)

< 보기 >

생물의 동면을 결정하는 인자 중에서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상 기온이 있듯이 기온은 변덕이 심해서 생물체가 속는 일이 많다.

(가) 하지만 위험은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것만이 아니다.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를 특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매우 많다.

(나)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날씨의 변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동면에 들어가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일부 동물들은 계절 변화에 맞추어진 생체 시계나 일광 주기를 동면의 신호로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 박쥐의 경우 동면하는 동안 이를 방해해서 깨우면 다시 동면에 들어가더라도 대다수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잠시나마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버리기 때문이다.

(라) 흔히 ‘미친 개나리’라고 해서 제철도 아닌데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고 꽃을 피웠다가 날씨가 추워져 얼어 죽는 일이 종종 있다. 이상 기온에 속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겨울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춥지 않아 벌레들이 다시 나왔다가 얼어 죽기도 한다.

① (나) → (다) → (라) → (가) ② (나) → (다) → (가) → (라)

③ (라) → (가) → (다) → (나) ④ (라) → (가) → (나) → (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서울시9급 국어 A책형 문20)

③ (라) → (가) → (다) → (나)

(라) 흔히 ‘미친 개나리’라고 해서 제철도 아닌데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고 꽃을 피웠다가 날씨가 추워져 얼어 죽는 일이 종종 있다. 이상 기온에 속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겨울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춥지 않아 벌레들이 다시 나왔다가 얼어 죽기도 한다.

㉞ 하지만 위험은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것만이 아니다.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를 특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매우 많다.

㉟ 박쥐의 경우 동면하는 동안 이를 방해해서 깨우면 다시 동면에 들어가더라도 대다수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잠시나마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버리기 때문이다.

㊹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날씨의 변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동면에 들어가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일부 동물들은 계절 변화에 맞추어진 생체 시계나 일광 주기를 동면의 신호로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글의 순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맥을 이용한다.

◆ (라) 얼어 죽기도 한다. → (가) 얼어 죽는 것만이 아니다. ~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매우 많다. → (다) 박쥐의 경우 동면하는 동안 이를 방해해서 깨우면 ~ 죽어버린다. ~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 → (나)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 조금 더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동면에 들어가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정답: ㉟

- 영보이 저서 -

◆ 2022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7월 말 출간 예정 >

★ 2022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성어 편” < 7월 말 출간 예정 >

◆ 2022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7월 말 출간 예정 >

ㄱ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ㄴ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22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22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22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